
2021년 7월 28일 평동교회 수요성서연구 자료 - Ver.1 공동읽기와 묵상

제목 : 레위기 11. 정결함의 원리 -

본문 : 레위기 14장 1절~9절 /

(레 14:8)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
물 것ियो

나병의 진단과 정결함의 회복 - 질병의 문제를 다루는 중요 관점

1. 레위기 11~15장은 정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11~12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함과 거룩함의 의미를 단순히 먹거리 문제나 보건 위생학적인 측면에서만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점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으로서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12:43~44)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기준이었습니다. 이제 정결법의 나머지 부분인 13~15장의 내용을 통하여 정결함을 지키고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 13~14장은 소위 나병(**צָרַעַת**, **차라아트**)이라고 일컫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나병이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센병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문둥병이라 알려진 한센병이라기 보다는 사람이나 각종 물건의 표면에 생기는 악성피부병 또는 곰팡이를 가리킨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다양한 질병들이 있었을 텐데 유독 이에 대해서만 강조하면서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병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레위기의 맥락을 통해서 질병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다루는 중요한 방식과 관점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1) 13~14장의 내용을 다룰 때 다른 정결법의 내용들과 처음부터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제사장들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회의 구성원 중에서 특히 제사장이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2) 제사장의 진찰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나병으로 판정된 각각의 경우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왜 이렇게 처리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결국 이는 사회공동체의 건강함을 지키는 것과 관련되어 특히 **전염력이 있는 질병이나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로 다루라**고 하는 뜻일텐데요 오늘날의 형편을 생각해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3) 14장은 특히 나병환자로 판명된 자가 치료를 받아 정결함을 얻게 되는 규례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단순한 질병에서의 치료와 함께 본문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시 정결해지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과 절차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십시오.

유출병의 사례를 통한 권면 - 부정에서 떠나야 할 이유

2. 13~14장의 나병과 관련된 내용은 제사장들이 전담해서 숙지하고 살펴야 할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11~12장 그리고 15장의 내용은 그 백성 모두가 함께 알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15장에 소개되고 있는 몸의 유출병과 관련된 내용은 현재의 관점으로 보아도 조심하고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각 사회마다 다양하게 다루는 문화적인 배경이 있고 시대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레위기가 다루고 있는 내용의 전체적인 의미들을 주의깊게 살필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풍성한 삶을 위하여 허락하신 성경을 도리어 인간의 삶을 억압하고 왜곡하는 방향으로 쓰이고 말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오늘의 본문을 다룰 때에는 레위기가 기록된 당시의 문화와 관습을 함께 살피면서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바를 찾기 위하여 부단히도 노력하고 특히 고통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본문의 진실한 의미가 어떻게 다가왔을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동반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나병과는 달리 유출병은 **매우 개인적인 사항**이라는 점에서 제사장이 판정하지 않고 각각의 개인들이 자신을 살피면서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몸에서 유출되는 것과 관련되어 남자는 여자는 자신의 몸과 관련되어 함부로 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것이든 비정상적인 것이든 몸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활동들은 개인적인 측면에서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1) 유출병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낳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런 유출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결국 사회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참고 민 5:2~4) 그런데 그런 유출이 깨끗해진 사람은 어떤 과정과 절차를 밟아서 정결해 지게 되었을까요?

2) 15장 초반부가 남성의 유출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19절에서부터는 여성의 유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성의 유출과 관련되어 다루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과 **동일한 내용**이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3) 정결법을 마무리 하면서 레위기는 **제사장에게 전하는 당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31의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이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하는 제사장의 중요한 책임은 무엇입니까? 역사속에서 성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별이 흐트러진 곳에서 억압과 압제 학대가 수반되어 나타났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참고 겔 22:25~29)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 적용을 위한 기도 제목 : 코로나19 감염의 위기 속에서 정결함과 거룩함에 대한 레위기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질병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어떻게 올바르게 다루어야 할지 묵상하며 깨닫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